

민간군사기업 (PMC)에 대해 알아보자

<민간군사기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무슨 말인가 싶을겁니다. '민간',과 '기업'이라는 단어는 어울리는데 '군사'라는 말이 중간에 끼여있다.. 軍이라는 존재는 한 국가의 정부가 행사하는 대표적인 공권력입니다. 때문에 '민간기업'이 운용하는 '군(軍)'이라는 말은 어색할 수 밖에 없죠. 이런 이질적인 존재인 '민간군사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간군사기업, 영어로는 PMC (Private Military Company)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전쟁을 대행하는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국가의 군이 수행하는 각종 전투활동의 일부분을 민간업체의 자금으로 각종 장비와 인력을 고용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군사적 서비스를 고객에 맞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발전된 형태의 경호기업', 살짝 비틀어보면 '용병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7년 대표적인 PMC인 '블랙워터'가 설립된 이래로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PMC들이 생기고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2003년 이라크 전때는 미 정부가 파견된 미국 정부 고위관료 경호를 위해 블랙워터 사를 고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라크전에 참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워터는 이라크전을 계기로 PMC 업계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게 됩니다. (2009년에 개명되어 현재는 'Xe' 사)



<최초이자 현재 대표적인 PMC 업체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블랙워터' (현재는 'Xe')>

단순한 소규모 민간군사단체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는게 이들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개인화기로 무장하고 방탄차를 모는 요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장갑차, 헬기에서부터 공수전력의 투입이 가능한 대형 수송기까지 보유하고 현역 군인의 2~3배에 달하는 수입으로 퇴직한 엘리트 군인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전력이 곧 회사의 능력으로 직결되는 업종 특성상 특수부대 출신의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정규군보다 특성화된 훈련을 통해 개개인의 전투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한정된 보급이 이뤄지는 정규군의 개인장비와 다르게 요원 개개인이 자신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총기, 각종 개인장구 역시 정규군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군장과 복장 개인화기 모두 자신의 입맛대로 구입해 착용합니다.>

이라크 전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각종 소요사태로 진정이 되지 않자 다양한 PMC 업체들이 이라크로 향했고 이라크에 투입된 30만 병력중 20만에 가까운 인원이 PMC 업체 직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하기 힘들거나 꺼릴만한 잡다한 일들을 PMC 업체들이 맡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전쟁을 PMC 업체가 주도하면서 하나들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PMC는 돈의 원리에 움직이는 무장단체라는 것입니다. 유권자의 표로 움직이는.. 최소한 도덕적 관념은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운용하는 정규군과 다른 점입니다. 만약 PMC 업체들이 각국 정부의 룬제를 벗어나게 된다면 도덕성 상실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라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 행정관을 근접경호하고있는 PMC 직원들 / 2007년 바그다드에서는 PMC 직원들이 민간인에게 사격을 가해 17명을 사상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PMC 업체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총기 소지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PMC 업체가 가진 '용병'이라는 성격에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이 악(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같은 분쟁지역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에게 PMC는 정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세세한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또한 군에 비해 훨씬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외파병군이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에 대해 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PMC 업체 'Bullet-K' / 기본적인 어학능력도 필수라 현지에서 진출한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한국군 기지에 반군의 RPG 공격이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군 외곽까지 경호를 맡았던 업체가 한국의 민간군사기업중 하나라고 합니다. 민간군사업체가 정규군을 보호하는 경우죠. 또한 군의 경직된 조직에서 벗어나 융통적인 작전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국가가 나서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거나 국가를 목표로 한 보복공격이 우려될 경우에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사가 그렇듯이 잘만 운용되면 이로운 것이죠. 우리나라는 PMC 업체들의 태동기로 갓 설립된 업체들이 '자국민의 보호와 수익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호아래 서서히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본 기사는 '방위사업청 인터넷기자단'의 기사로 방위사업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